

이덕일의 '역사의 창'



우리 역사관의 현주소

지난 3월 LA 소재 한 대학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왔다. 그때 만난 대학교수 두 분이 잠시 귀국했기에 만났다. 두 교수 모두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다. 과거에는 근·현대사가 역사 전쟁의 최전선이었지만 지금은 일제강점기처럼 다시 한국 고대사가 최전선이 되었다.

한 교수는 인터넷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중국 한(漢)나라 강역도를 보여 주었다. 한사군을 북한 지역에 그려 놓고 북한 지역 대부분이 중국 강역이었다는 지도였다. 중국 고대사료들은 한사군이 지금의 중국 허북성 일대에 있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사료에 맞게 고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일본과 중국의 국가 차원 공작에 국내 역사학자들까지 일본·중국에 동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2008년부터 8년간 60여 명의 학자들이 47억 원의 국고를 들여 만든 지도다. 이 사업은 그간 관심 있는 사람들과 알고 있었는데, 최근 도종환 장관 때문에 유명

하게 되었다.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되자 보수, 진보 언론이 일제히 나서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의원 시절 이 지도 사업을 중단시켰다면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중단시켰다고만 말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동북아역사지도'의 문제점은 열 권 이상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지만 핵심만 말하면 '한사군=한반도설에 따라 북한 강역은 모두 중국에 넘겨주었고, 4세기를 표시하면서도 백제·신라·가야를 그리지 않았으며, 독도를 일관되게 삭제시켰다'로 요약된다. 발주처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5개월간의 수정기한을 주었는데, 이사장은 내게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니 독도는 꼭 그려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독도는 끝내 그려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 언론들까지 조선총독부 역사관에 매몰

되어 도종환 의원이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폐기시켰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점이다. 노동·농민운동계 등 노동으로 먹고사는 곳은 그렇지 않았지만 말로 먹고사는 일부 지식인 진보들은 깊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 발언은 한국 학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중국은 2012년 '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CRS)'라는 자료를 미 상원 조사국에 보냈다. 한사군을 근거로 북한 지역이 중국의 역사 영토였다는 자료를 보냈다. 미 상원에서는 이를 한국에 전달하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이를 맡겼고 당시 동북아재단 이사장과 '동북아역사지도' 책임자였던 서울고대 임 모 교수 등이 미 상원에 가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사군의 남쪽 한계는 황해도 재령강 연안과 강원도 북부'라는 것으로 중국 측의 견해가 대부분 맞다는 내용이다. 한사군 낙랑군이 지금의 허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차고 넘치지만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만 추종했다. 이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 측에 전해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을 자국 영토로 편입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시진핑 발언은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나온 것이다.

북한 강역 대부분을 중국 측에 넘겨주고,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백제·가야가 없었다면서 표기하지 않고, 5개월간의 수정기한을 주었음에도 독도를 끝내 그려지지 않은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중지시켰다고 난리를 부리는 학자와 언론인들, 현재 이 나라는 덜도 더도 아닌 구한말 딱 그 상황이다. 정심은 이미 넘어갔고, 남은 것은 영토뿐이다. 그나마 백 년 전에는 백암 박은식, 석주 이상룡, 단체 신채호 선생 등이 우리 역사를 지켰지만 지금 그 분들이 목숨으로 지킨 역사는 땅속 깊이 파묻힌 지 오래다. 그들이 파묻은 역사를 다시 파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역사권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장)

커피한잔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썩어 하고 썩어지는 빗소리란 실은 빗줄기가 수목과 땅과 지붕들을 때리는 소리일 것이다. 구름이 무거워져 지상으로 물방울들을 낙하시키는 동안에 정작 빗소리란 없다. 나는 살아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빗소리를 못들을 지도 모르겠다.

장마다. 옛그제 새벽엔 장대하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을 깬다. 오는 비는 울지라도 한 댕새 왔으면(소설시 왕십리)할 만큼 때마침 대지가 흠뻑 젖어든다. 나같은 올드보이들이라면 누구나 유년시절 여름밤 치마를 두들기며 깔깔이 쏟아지던 장맛비의 음향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 그것은 대개 암연(暗然)한 지루함, 알 수 없는 두려움들로 칠해져 있다. 그 지루함과 두려움의 기억을 유년시

장마

절 겪은 한국전쟁의 가족사를 통해 리얼하게 엮어낸 소설이 윤희길의 중편 '장마'다. 6·25가 막바지에 이른 전북 이리, 나(동반)의 집엔 서울 살던 외가가 피난을 와 전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지낸다. 친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육군소위. 어느 날 빨치산 소탕작전을 나갔던 외삼촌의 전사통지가 온다. 그때까지 한지붕 밑에 별말없이 지내던 사돈간은 갑자기 폭발한다. "...엄청나게 장마비가 쏟아지던 날 조용히 콩을 까던 외할머니는 느닷없이 소리쳤다. 더 쏟아져라. 더. 비오세에 있는 빨갱이 마자 다 쓸어 가그라! 솥뚜껑 같이 딱딱 고실라라. 그려. 울지. 하느님 고맙습니다. 뛰어 나온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사정없이 욕을 했다. 저 누나리 어떤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소설 전체를 누르고 있는 장맛비의 무거운 긴장 속에 주인공인 나는 평생 잊힐 리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초콜릿을 내밀며 빨치산 삼촌의 행적을 묻는 형사에게 삼촌이 다녀간 사실을 말해버린 것이다. "...맥고자를 쓴 한 사내가 세 개째의 초콜릿을 구두발로 짓밟아 버렸다.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지? 그게 언제지? 이제는 초콜릿이 두 개밖에 안 남았다. 나는 집을 한번 꼴딱 삼키고는 전부 말해 버렸

다..." 이 때문에 동반의 아버지는 불들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다. 할머니는 동네 소경 점쟁이가 모일 모일 진시(屍時)에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점을 쳐주자 그날만을 기다린다. "...점쟁이가 잡아준 날을 세던 할머니는 장마에 묻혀버린 다리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삼촌이 저기를 못 건너면 시오리는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나 점쟁이가 예언한 날 빨치산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대신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에 쫓긴 구렁이가 한 마리 마당으로 들어온다. 이를 본 할머니는 까무러쳐 버리고 대신 늘 빨치산을 저주하던 외할머니가 뜻밖의 행동을 한다. 갑나무에 올라간 구렁이 아래 음식상을 차리고 두손을 마주 비벼며 마치 구렁이가 사돈내 아들의 현신이라도 된 듯 기도하는 것이다. "...애구 이 사람아, 집안 일 못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노친께서 기력도 여전 허시고 식구들도 모다 잘있네. 그나니께 어서어서 자네 가야 할 디로 가소. 노친양반께서 자네가 이라고 있는 꼴을 보면 열매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구렁이는 대숲으로 사라지고, 쓰러졌다 깨어난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를 한다. 할머니는 그 얼마 후 숨을 거둔다. 지루한

장마가 끝날 무렵이었다.

내력을 좀 뒤져보면 어느 마을이나 있었던 6·25의 이념갈등. 소설 속 두 사돈은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이웃이 좌우로 나뉘어 서로를 실상한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처는 70년이 다 되도록 남아 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구렁이 장마의 기억처럼 무겁고 녹녹하게 우리를 짓눌러왔다.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판도, 대통령 선거판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의 색깔시비도 모두 그 연장선이다.

북한 선제타격도 마다않는 미국을 우리 대통령이 겨우 달라고 돌아오자마자 북한은 ICBM을 쏘아 올리며 이를 헛수고로 만드는 모양새다. 남쪽의 비둘기파들에겐 참으로 고약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 "장전 용사도 민주화 희생자도 모두 애국자"라며 우리사회의 성숙한 화해를 도모했지만 장맛비에 우당탕 흐르는 흙탕물처럼 외부건경이 이를 덮여버리고 있다.

그러나 긴 장마도 끝이 있을, 구름사이 파란 하늘이 나타나는 여름날처럼 분단으로 인한 긴 갈등도 결힐 날이 올 것이다. 소설 속 원수같은 사돈간이 화해를 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중요부터 버리는 것이다.

社說

하남산단 오염 물질 투기 원천 차단해야

광주 풍영정전에 지난 3일 물고기 수 백 마리나 폐사한 채 떠올랐다. 물고기 폐사와 오염 물질 신고 접수가 올해에만 벌써 7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환경 당국의 부실한 하천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 당국은 인근 하남산단의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 풍영정천의 수량이 많아지면 폐수나 폐수를 몰래 버리는 업체들이 있다는 게 환경 단체의 주장이다. 환경 단체인 '풍영정천 사랑모임'은 "풍영정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남산단에서 들어오는 폐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원인을 알면서도 사전에 방지를 못하는 것은 광주시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하남산단에는 현재 기계·금속, 섬유·화학 제품, 전기·전자 부품 등을 생산하는 970개 공장이 있다. 환경 단체들은 일부 공장주와 종사자들이 폐유

등 유독 물질을 수시로 하천에 몰래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시와 광산구 등 관리 감독 기관만 벌써 7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환경 당국의 부실한 하천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 당국은 인근 하남산단의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 풍영정천의 수량이 많아지면 폐수나 폐수를 몰래 버리는 업체들이 있다는 게 환경 단체의 주장이다. 환경 단체인 '풍영정천 사랑모임'은 "풍영정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남산단에서 들어오는 폐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원인을 알면서도 사전에 방지를 못하는 것은 광주시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하남산단에는 현재 기계·금속, 섬유·화학 제품, 전기·전자 부품 등을 생산하는 970개 공장이 있다. 환경 단체들은 일부 공장주와 종사자들이 폐유 등 유독 물질을 수시로 하천에 몰래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시와 광산구 등 관리 감독 기관만 벌써 7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환경 당국의 부실한 하천 관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 당국은 인근 하남산단의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 풍영정천의 수량이 많아지면 폐수나 폐수를 몰래 버리는 업체들이 있다는 게 환경 단체의 주장이다. 환경 단체인 '풍영정천 사랑모임'은 "풍영정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남산단에서 들어오는 폐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원인을 알면서도 사전에 방지를 못하는 것은 광주시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 '민생' 위해 추경 처리에 협조를

여야의 인사 청문 정국 대치로 지난 7일 국회 제출 이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엇갈림 심상위 심사 착수로 힘겹게 첫발을 뗀다. 하지만 또다시 난관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보류권을 선언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예결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 야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지만 보수 야당을 뺀 시야 자체가 여당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3만 9000개를 만들고 내수도 진작하겠다

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전남형 일자리 플랫폼' 등 이번 추경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고 지원을 요청한 사업도 43건 1600억 원에 이른다.

역대 정권의 첫 해 추경이 국회 상임위 상정에 소요된 기간을 보면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는 국회 접수 후 5일,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는 단 하루였다. 이와 비교하면 새 정부의 첫 추경 처리 속도는 사상 최악이다. 경제난과 가뭄에 허덕이는 민심을 감안하면 추경은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가뭄 극복과 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 지역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서도 추경은 질실수 없다. 시·도가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고대하는 이유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이야 다를 수 있지만 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 일자리 3만 9000개를 만들고 내수도 진작하겠다

無等鼓

아파트 등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나면서 도시를 대표하는 색은 회색이 됐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소음, 교통 정체, 범죄 등은 '회색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그 대안으로 도시에 녹색을 입히고 생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과 개발 등의 용어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

고대부터 존재했던 도시에 '계획'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유럽의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부터다. 수용

젯빛 도시 광주

한도를 넘어선 인구의 밀집은 주택난과 전염병을 낳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몰려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하수 시설이나 참문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시기다.

작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고층 아파트만 한 것이 없다. '공업도시'를 발간한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빛나는 도시'를 펴낸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등 저명한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들이 아파트를 도시 빈민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사실 아파트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귀족의 대저택을 도시 중산층들이 아파트트망(appartement)별로 나누어 살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건축 기술의 발달, 엘리베이터 등 관련 기계의 개발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 건축 붐이 일어났다. 광주에는 1970년 저층 아파트가 등장하더니 최근 30층을 넘어선 젯빛 아파트들이 도심

과 외곽 곳곳에 속속 들어서고야말로 '아파트 도시'가 돼 버렸다. 거기에 구도심과 외곽 밀집은 주택난과 전염병을 낳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몰려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하수 시설이나 참문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시기다.

작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고층 아파트만 한 것이 없다. '공업도시'를 발간한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빛나는 도시'를 펴낸 르 코르뷔제(Le Corbusier) 등 저명한 도시계획가 및 건축가들이 아파트를 도시 빈민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사실 아파트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귀족의 대저택을 도시 중산층들이 아파트트망(appartement)별로 나누어 살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었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d@

기 고



김요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옛날에는 짐승을 잡고, 물고기를 잡았다. 수렵(狩獵)이다. 푸성귀를 베거나 열매를 따다. 채취(採取)다. 먹고 살아가는 생계였다. 짐승이나 물고기를 많이 잡고, 푸성귀와 열매를 넉넉히 얻으면 서로 나누어먹었다. 물물교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다. 삶이 곧 문화인 시대였다.

시간이 지나 짐승을 잘 잡는 사람은 짐승만 잡고, 푸성귀를 잘 키우는 사람은 푸성귀만 기웠다. '전문화'를 통한 대량생산이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요리하는 사람이 나뉘었고, 열매를 따는 사람과 음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나뉘었다. '단순화'를 통해 효과를 높였다. 문화의 산업화 시대였다.

밤에도 일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아시아문화전당, 변화와 도전의 시대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냉장고를 만들고,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예쁜 옷을 만들었다. 더 편하고 더 빠르게 더 맛있고 더 멋있게 삶이 바뀌었다. 문화의 혁명 시대다.

수렵과 채취의 시대는 단순했다. 더 많이 생산하려고 모아서 일하고, 힘에 부치면 노래를 불렀다. 삶에 문화가 생긴 일이고, 생계에 문화가 보태진 거다. 후손이 알도록 그림을 그려 방법을 알렸고, 글을 만들어 적었다. 문화의 발전이다. 더 쉽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엔 글과 그림을 즐겼다. 밥벌이의 보조였던 문화는 산업이 되었다. 문화산업은 기술발달로 문화혁명을 맞이하였다.

문화는 이제 단순에서 벗어났다. 다양한 문화가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기도 하고, 문화의 상상은 창조로 이어졌다. 사회는 밥벌이만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고, 창조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도 한다. 단순화·전문화 되었던 삶과 문화는 다시 융합이 되고 복합을 이룬다.

융합(融合), 사회와 문화가 섞이고, 문화와 창조가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복합(複合), 사회와 문화와 창조가 더해져 하나가 되는 일이다. 이제는 융합과 복합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한다.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에서는 사람이 해야 할 복잡한 일을 컴퓨터가 쉽게 해결한다. 시설이나 장비에 인터넷 정보를 입력하여 사람은 관리만 해도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사물인터넷).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로봇에 인공지능(AI)까지 넣는다. 사람이 하던 일과 사람의 습관 그리고 자연현상까지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빅데이터). 4차 산업은 의료를 비롯한 생명공학에까지 접목되었고, 4차 산업이란 말은 마치 삶이 만들어지는 블랙홀처럼 되었다.

4차 산업이 꿈틀거리라는 미래 문명의 정부가 태어났다. 4차 산업은 일자리의 핵심이고, 사회의 중요한 화두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곳곳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용어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4차 산업이 일자리를 얼마마하게 끌어낸다면서 말잔치를 베풀다. 젊은이들과 보통 사람들은 4차 산업에 대한 용어를 배우고 익히느라 정신이 없다.

광주에는 4차 산업을 '4차 문화'로 이끌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 참여정부 때 들어섰다. 예술의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전당 탄생에 깔려있는 광주 5·18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양심과 정의를 정착해야 함도 물론이다. 문화전당 설립 목적이 '최소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흔들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도 멈춘 셈이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도 흔들렸고, 문화중심 도시라는 말만 날은 셈이다.

우리 사회에 불안개처럼 내려앉은 4차 산업,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풀어야 하던 일과 사람의 습관 그리고 자연현상까지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빅데이터). 4차 산업을 의료를 비롯한 생명공학에까지 접목되었고, 4차 산업이란 말은 마치 삶이 만들어지는 블랙홀처럼 되었다.

문화는 나라님이 기획하는 일에 상식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한다. 시민이 함께 하지 않는 문화는 수행하는 일은 좀 억지스럽다. 지금의 복잡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변화를 통해 대표 콘텐츠(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유니콘(미래 가치 1조 원의 콘텐츠)기업이 나오면 더 없이 좋고.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있다고 광주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광주만의 소유일 수 없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 예술의 플랫폼, 문화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광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있으니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